

단종애사(哀史), 청령포



안명기
시인·수필가

밤새 달과 별,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과 함께 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글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좋았다.

끝없이 이어질 듯한 밤도 시간이 흐르면 여지없이 밝아지는 밤...

몇 날 며칠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 잡고, 황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다음 행선지인 영월에 위치한 단종릉으로 향했다.

열두 폭의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산허리를 끼고 도니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코끝을 간질이는 신선한 공기는 도회지를 떠나 산사에 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비류직하 태산준병은 거대한 청룡과 황룡이 뒤엉킨 듯이 장관을 이룬다. 사이사이에 납작하게 엎드린 손바닥만한 들녘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빛으로 인하여 화려한 경관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이처럼 수려한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렇게 삼십 여 분을 달리자 비운의 왕 단종의 능이 우리를 맞이한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흥겨움도 잠시, 숙연함에 고개가 절

로 숙여진다. 유배 가던 날, 정순왕후 송씨와 동료 앞 영도교에서 생이별을 하고 천 리 유배 길을 올랐던 열여섯의 어린 단종을 생각하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하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된 뒤 죽임을 당한 사육신 -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것에 항의하고 벼슬을 버리고 살아서 저항한 생육신 -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여, 성담수, 남효온.

숙부인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결국 유배 길에 오르게 된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였고, 뒤는 칼보다 더 날카로워 나는 새조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하니(飛鳥不入), 천혜의 유배지라 할 수 있다. 첩첩산중에 밤에는 피를 토하며 애간장을 끓을 듯한 자규(子規)의 울음소리와, 포악스럽게 들

벼오는 포구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린 단
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충암절벽인 노산대에 올라 한양 땅 서쪽을 바라
보며, 두고 온 정순왕후가 그리워 가슴을 쥐어
짜며 몸부림을 치진 않았을까?

정순왕후 또한 지아비를 그리며 매일 아침 동쪽
영월을 향해 울부짖었고, ‘정업원’이라는 움막
안에서 82세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권좌 앞에서는 진정 혈육
의 정(情)도 없단 말인가? 입안이 쓰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온다.

우리 일행은 작은 동력선을 타고 강을 건너 단
중 어소에 도착했다. 충절을 나타내는 소나무들
은 모두 단중 어소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신기
하기에 앞서, 슬픈 역사를 간직한 모습에 가슴
한구속이 멎해온다.

관음송(觀音松).

단중의 억울하고 아픈 모습을 지켜보았고, 울부
짖음을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아! 그 처절하고도 애절한 슬픈 현장을 지켜본
백 척 소나무 관음송.

17세의 어린 나이에 혈육인 숙부에게 사약을 받
아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똑
똑히 지켜보았을 테지...

엄흥도(嚴興道)를 기리는 정려각.

단중의 시신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에 버려졌다. 삼죽을 멸한다는 세조의 후환이
두려워 누구 한 사람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단
중의 시신은 바로 떠나려가지 않고 며칠간을 뱅
글뱅글 돌았다.

그래도 충신은 있는 법.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

열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
어 ‘동을지산’에 묻었다. 그곳이 바로 단중이

묻혀 있는 지금의 장릉이다. 그리고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단중이 죽자 여섯 명의 궁녀들은 차제로 동강
(東江)에 몸을 던져 순절하니, 후세 사람들은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 불렀고, ‘민충사’라는 사당
을 세워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슬픈 역사가 물례
바뀌처럼 도는 현실 앞에, 가슴속에서 웅어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슬프고도 아픈 역
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른 목적지인 하늘
을 이불 삼고 산천을 벗 삼아 해학과 재치, 그리
고 풍류로 한 세상을 바람처럼 살다 간 조선 후
기 천재 시선(詩仙), 난고(蘭亭) 김삿갓 문학관
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MP저널



청령포나무
청령포 입구에서 나룻배를 이용해 오갈 수 있다.



단중어소
단중어소(壇宗御所)는 단중이 두 달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집이다.